

# '광주다움 통합돌봄' 각계 관심 뜨겁다

###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콜·의무방문 등 현장 사례 점검 대통령자문기구·지자체 벤치마킹...제주도·수원시 시작

광주시의 돌봄 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2년 차를 맞으며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자문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2028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지난 3월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제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

남 의원은 이날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현장을 먼저 찾았다.

이어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급증하는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남 의원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배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강조하며 "동행복지센터 공무원의 '1대1 케어매니저' 활동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유연한 사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성공적 정착 방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품질 향상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영역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한편, 민간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까지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혁신적 돌봄시스템"이라며 "이를 위해 애써준 핵심 실행 주체인 일선 공무원과 이를 함께 수행하는 민간서비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

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벤치마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광주시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는 서울·부산·대전 등 곳곳에 이른다. 제주와 수원 등 광주 모형을 통합돌봄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주목한 데 이어, 10월 국제노화포럼, 11월 통합사례관리학회 등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실행 체계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선강기자



지난 27일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에서 만난 남인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 맞손

### 오늘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공동 결의문' 채택

영·호남 8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다.

특히 영·호남 상생협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

든 중심축이었지만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8개 시·도는 영·호남이 하나가 돼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영·호남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영·호남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 신안에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개관

### 체계적 생산·유통구조 개선...수출시장 공략

전남도는 지난 27일 신안 아해읍에 천일염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식품기준에 적합한 천일염 가공으로 수출시장 공략 전진기지 역할을 할 천일염종합유통센터(사진)를 개관했다.

천일염종합유통센터는 170억원을 투입해 6년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장동, 행정동, 연구분석실 등 연면적 4천92㎡ 규모로 건립됐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는 천일염의 염도는 84~94% 수준인 데 반해, 국제식품규격에서는 염도 97%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출에 제약이 있었다. 천일염종합유통센터는 천일염 전처리(세척·탈수·건조·냉각·선별)를 통해 국제식품규격에 적합한 97% 이상의 염도도 가공할 수 있어 수출량 증가가 기대된다. /양시원기자

## 전남 동부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주력

### 道, 광양시 일자리박람회...50개사 참여 200여명 현장 면접

전남도는 지난 27일 광양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더 좋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중기청, 여수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보훈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한 이번 박람회는 지역 인재에게는 지역 우수 기업의 취업 기회를, 구인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

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임형석 전남도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기업 협회·단체 등이 참석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응원했다.

전남도는 광양시, 기업 및 협단체와 '지역인재우선채용 협약식'을 갖고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람회에는 ㈜에어리스,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 파우린화학 등 동부권 기업 50개사가 참여했다. 제조·운수·물류·서비스·복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무직·연구원·생산직·개발 및 설계직 등 2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계층별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은 각 기관의 일자리정책 안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힐링상담 테라피, 이력서 사진관, 퍼스널 컬러 진단, MBTI 성격유형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러진 취업컨설팅관을 운영해 구직자 및 박람회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박람회에서 구인·구직을 이룬 기업과 도민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을 못한 기업과 도민에 대해서도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 신중년, 여성 일자리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며 "지역 기업과 구직자 모두 전남에서 기회와 꿈을 갖도록 일자리 창출을 전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1면 '가정용 도시가스'서 계속

동부권인 여수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화도시가스사의 소비자요금 MJ당 29,978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저렴했다.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등 서남권 8개 시·군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사가 MJ당 24,301원으로 가장 비쌌다.

군(郡) 단위 LPG배관망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하고 동부권(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의 평균 가격은 MJ당 23,477원이며, 서남권(MC에너지, 해양에너지)의 평균은 MJ당 24,123원이다.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MJ당 0,642원 더 비싼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23년 기준 수도권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이다. 10명 중 3명 이상은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지역 간 차별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매일신문**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재고합8 포고제2호위반

피고인 박희순

위 피고인은 포고령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9. 23.

재판장 판사 김용규  
판사 서승범  
판사 이지혜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동 로타리 대로변 코너 최고요지 상업지228㎡**  
급매10억3,000 (면적 추가가능)

=====

**광주역 6차선 대로변 상업지 대지479㎡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주차6대 급매 14억9,000(커피카페,음식점,전시장등 묶든 최적)

=====

**광주역 코앞 상업지 대지534㎡ 6층1,145㎡ 승강기1 주차16**  
스프링클러, 병원기준완비, 의료장비도 비치, 병상7개  
급매 26억8,000(조정가/임대도가능)

=====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재고합8 포고제2호위반

피고인 김원식

위 피고인은 포고령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9. 23.

재판장 판사 김용규  
판사 서승범  
판사 이지혜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압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